

김혜옥·황영희·김미경

안방극장에 떠오르는 '엄마 파워'

김혜옥·나문희 등 이어

'국민엄마'로 자리매김

잔뼈 굵은 연기 선보여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



왼쪽부터 김혜옥·황영희·김미경

주인공이 부럽지 않은 '엄마'들이 있다. 각종 드라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마' 역할을 맡는 이들은 극 중 비중의 경중을 떠나 때면 인상 깊은 연기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김혜옥, 나문희, 고(故) 김영애, 고 김자옥, 고두심, 윤여정, 김창숙, 김해숙, 박원숙, 이휘향, 송옥숙 등 '국민 엄마'로 군림했던 선배들의 바통을 이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3인방은 김혜옥(59), 김미경(54), 황영희(48)다.

이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히트작에 어김없이 얼굴을 내밀며 주인공의 엄마로서 극에 확실한 인장을 남겼다. 세 배우 모두 연극 판에서 잔뼈가 굵은 '대기만성형 배우'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혜옥은 10년 전에도 엄마 역할로 동분서주했지만 2012년 KBS 2TV '내 딸 서영이'를 기점으로 최근 5년 최고 인기를 누리며 '오자룡이 간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왔다 장보리' '연애의 발견' '달콤한 비밀' '프로듀사' '딱 너같은 딸' '다시 시작해'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초인가족' 등 연속극과 미니시리즈를 종횡무진하며 50대 후반을 불태웠다.

역시 대학을 친 '왔다 장보리'에서는 장보리 엄마를 맡아 악역으로 변신했고, '프로듀사'에서는 한류스타 김수현의 엄마를 맡아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다.

현재는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에서 자식을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엄마를 맡아 드라마 속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설득력 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극무대를 거쳐 1980년 MBC 특채탈린트로 뽑힌 김혜옥은 오랜 기간 무명 배우, 조연 배우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가 50대로 접어들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엄마 역할을 소화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김혜옥은 '엄마'로서 화면에서 만개하고 있다. 한없이 자상하고 푸근한 엄마부터 도도한 사모님까지, 풍수극 다분한 코믹 연기부터 눈물을 속 빼놓는 감정 연기까지 김혜옥의 팔색조 매력은 드라마의 젊은 여주인공을 무색하게 한다.

황영희는 2014년 MBC TV '왔다! 장보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기 인생 20년 만에 스타덤에 올랐다. 목포 출신으로 고교시절부터 극단 생활을 한 그는 40대가 되도록 가난한 연극 배우, 무명 배우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 '왔다! 장보리'에서 희대의 악녀 연민정의 엄마 역을 맡으면서 역적스럽고 뻔뻔한, 그러나 모성애가 깊은 엄마의 모습을 개성 넘치게 그려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미스터 백' '스웨덴 세타스' '화정'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내 사위의 여자' 등에 줄줄이 캐스팅된 그는 최근 네 편의 드라마에서 연달아 엄마 역할을 맡아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김미경은 2010년 KBS 2TV '성균관 스캔들'과 2013년 SBS TV '상속자들'을 거치면서다. 이후 SBS TV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온몸이 마비된 남편의 병사증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엄마 역할을 했던 그는 MBC TV '화려한 유혹'에서는 강자에게 비굴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한심한 엄마로 분했다. 그러다 그는 지난해 tvN '오해영'에서 보여준 연기로 갈채를 받았다. 내 주변 어디서나 마주칠 듯한 전업 주부이자,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일상이 세밀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말을 특목 내뱉고 무심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자식 사랑이 깊은 엄마의 모습이 김미경의 전매특허. 이같은 캐릭터는 코믹함을 한껏 배가한 KBS 2TV '마음의 소리'를 거쳐 현재의 MBC TV 월화극 '20세기 소년소녀'와 KBS 2TV 금토극 '고백부부'로 이어진다. 두 드라마에 동시 출격 중인 김미경은 친구 같은 엄마, 손 내밀면 당장 당을 걸 같은 현실감 있는 엄마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지난 5월 막을 내린 MBC TV 저녁 일일극 '행복을 주는 사람'에서는 비뚤어진 모성애의 이기적인 엄마를 연기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였다.

엄마 김미경의 출발은 엄마가 아니었다. 송지나 작가가 사랑하는 배우로 유명한 그는 '카이스트' '태왕사신기' '힐러' 등 송작가의 작품에서는 독특한 괴짜 연기를 펼쳤다.

그런 그가 엄마 연기로 눈에 띄기 시작

한 것은 2010년 KBS 2TV '성균관 스캔들'과 2013년 SBS TV '상속자들'을 거치면서다. 이후 SBS TV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온몸이 마비된 남편의 병사증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엄마 역할을 했던 그는 MBC TV '화려한 유혹'에서는 강자에게 비굴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한심한 엄마로 분했다. 그러다 그는 지난해 tvN '오해영'에서 보여준 연기로 갈채를 받았다. 내 주변 어디서나 마주칠 듯한 전업 주부이자,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일상이 세밀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말을 특목 내뱉고 무심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자식 사랑이 깊은 엄마의 모습이 김미경의 전매특허. 이같은 캐릭터는 코믹함을 한껏 배가한 KBS 2TV '마음의 소리'를 거쳐 현재의 MBC TV 월화극 '20세기 소년소녀'와 KBS 2TV 금토극 '고백부부'로 이어진다. 두 드라마에 동시 출격 중인 김미경은 친구 같은 엄마, 손 내밀면 당장 당을 걸 같은 현실감 있는 엄마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지난 5월 막을 내린 MBC TV 저녁 일일극 '행복을 주는 사람'에서는 비뚤어진 모성애의 이기적인 엄마를 연기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였다.

전 정권 공영방송 장악 의혹 조명

'지식채널e' 4부작 최종회 내일 방영

EBS가 '지식채널e'(사진)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조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채널e'는 최근 '언론 4부작'을 준비, 지난주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두 차례 내보낸 데 이어 18일 오전 0시 25분 '작전 -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작전은 어떻게 수행되었나' 편을 방송했다. 4부작 중 최종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19일 방송 예정이다.

'작전' 편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공영방송사 사장 교체와 간부에 대한 '코드 인사',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 후 홍보 프로그램 편성 등을 언급한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장악 군히기'에 들어간 정황이 속속 발견된다고 제작진은 전한다.

매회 5분 분량으로 방송하는 '지식채널e'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시청자에게 화두를 던지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호랑이 선생님' 황치훈 별세

11년간 뇌출혈 투병

'호랑이 선생님'으로 알려진 인기 작가 황치훈(사진)이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46세.

17일 황치훈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양주시의 큰길 장례문화원에 따르면 11년간 뇌출혈로 투병해온 황치훈은 전날 세상을 떠났다.

황치훈은 1974년 KBS 드라마 '황희정승'으로 데뷔해 '호랑이 선생님' 등 작품에 출연했으며 가수로도 활동했다.

이후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변신했으나 2007년 뇌출혈



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딸이 있으며, 발인은 오는 18일 오전 9시다. 빈소는 경기도 양주시 큰길장례문화원.

문의 031-872-4444.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and Program Name, Description, and Program Name.

Table with 2 columns: Day (18th) and Day (19th), containing horoscope information for various zodiac signs.